



2014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

2014 YULCHON·ONYUL PRO BONO REPORT



법무법인(유)
법촌



2014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

2014 YULCHON·ONYUL PRO BONO REPORT



법무법인(유)
율촌



Contents

2014 YULCHON-ONYUL PRO BONO REPORT



06	인사말	44	장애인 고용 실천
10	공익사단법인 온울 출범	46	공익단체 지원
17	글로벌 사회공헌	52	2014년 통계
26	공익법제 개선 사업	55	온울 변호사 이야기
30	성년후견제 지원 사업	58	수상실적
33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씨드스쿨 지원	59	언론보도
38	봉사활동		



따뜻한 법,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



법무법인(유)
율촌



이사장 인사말



온유은 따뜻한 울촌, 따뜻한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로펌을 만들자는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유) 울촌은 전문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오면서 또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여 오늘날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울촌은 그동안 울촌 가족들이 추구해 온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 체계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온유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온유은 따뜻한 울촌의 손길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모두에게까지 구석구석 닿게 하고픈 울촌 가족들의 염원을 담아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울촌 가족들은 온유을 통하여 사회 공헌을 위한 기부뿐 아니라 울촌 가족 각자가 가진 열정, 재능, 에너지를 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태고자 합니다.

온유을 통하여 따뜻한 울촌이 따뜻한 법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사장 **신성택**

공익위원장 인사말



저희 율촌은 창립 시부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간 율촌은 공익활동의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2014년에 공익법인 온율을 설립하고, 단순한 공익활동이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CSV (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왕이면 법률전문가답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율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창출에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율촌과 온율이 시도하는 CSV는 아직 모색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2014년 한 해 동안의 저희들의 활동을 보고 서로 공개하여, 보다 좋은 사회를 꿈꾸는 이들의 따뜻한 조언과 깊은 지혜를 널리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공익위원장 **윤세리**



YULCHON + ONYUL

+ Warm
Law

Pro
Bono



공익
사단법인
온을 출범



공익사단법인
온율 출범



2014. 3. 3. 공익사단법인 온율 출범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의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4. 3. 3.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의 이름입니다.

‘온율’은 법률 지식으로 사회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기부와 봉사 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한편, 전문성을 더욱 연마하여 공익 법제를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율촌의 사회 공헌 노력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활동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가진 것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내부 혁신으로 우리 사회와 함께 공유할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법률가의 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온율의 비전과 미션

Vision

‘따뜻한 법’으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온율은 법률가들의 전문 법지식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법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Mission

- 공익 단체와 법률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한 공익 가치 실현
-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을 통하여 지적 장애인과 노인도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합사회 구현
- 공익 법제 연구 활동을 통한 공익 법제의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
- 씨드스쿨 후원과 장학사업, 자원봉사를 통한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사회 구현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회공헌

총 170명의 율촌 가족이 온율의 회원이 되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5. 2. 28. 기준 / 성명은 가나다 순 기재)

온율 이사회	이사장: 신성택 / 이사: 강석훈, 강희철, 박은수, 우창록, 윤세리					
온율 회원 총164명	강권도	김정남	박해식	윤용섭	이호진	최안영
	강석훈	김정수	백현민	윤초롱	이화준	최 완
	강성식	김정현	변현철	윤홍근	임경아	최인선
	강수구	김준형	서경희	윤희웅	임수영	최장석
	강유정	김철환	석홍동	이강민	임재연	최재혁
	강희철	김태건	설인수	이경근	임정근	최정열
	곽희경	김태용	소순무	이경준	장기옥	최지연
	구지혜	김태현	손은정	이미라	장영기	최혜선
	길지연	김한복	송상우	이민영	전영준	한봉희
	김건웅	김현정	송영은	이상민	정동수	한수연
	김경연	김희경	송인보	이석준	정성무	한승혁
	김규현	나연순	송인태	이선애	정운상	한진희
	김근재	류영지	신성택	이선영	정 원	한현숙
	김기락	문재우	안은숙	이수연	정준우	허교순
	김기영	문준영	안응필	이수재	정태학	허 범
	김남호	박경숙	안재호	이수정	정현서	현은숙
	김능환	박광빈	엄효정	이수정2	조상욱	황규상
	김범준	박민아	엄용표	이승목	주동진	황문환
	김선경	박석준	오세진	이승민(M)	주순식	황은영
	김선경2	박성범	우재형	이영란	주우현	황인영
	김선희	박시종	우창록	이영미	차태진	황정훈
	김세연	박은수	유문숙	이예진	채경수	황형준
	김세진	박주봉	유예슬	이윤남	채송화	Fukunaga, Hidetoshi
	김순환	박준일	유흥수	이자영	천성현	
	김용목	박지은	윤덕근	이재원	천숙진	Harayama, Michitaka
	김윤태	박지호	윤세리	이재욱	최선영	
	김은정	박태용	윤소연	이재훈	최수연	
	김의기	박해성	윤 용	이정현	최승동	

YULCHON + ONYUL

+ CSV
Creating Shared Value



2014년 공익활동



개요

울촌은 설립 초기부터 공익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온울의 설립과 함께 공익활동을 전문 영역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 6개의 팀을 구성하여, **글로벌 사회공헌, 공익법제 개선, 성년후견제 지원, 청소년 교육지원,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 2. 28. 기준 / 성명은 가나다 순 기재)

울촌 공익위원회	위원장: 윤세리 / 위원: 강석훈, 강희철, 김왕기, 김윤태, 박은수, 신성택
온울 운영 지원팀	팀장: 박은수 / 간사: 윤덕근, 이용민 / 팀원: 김명훈, 김왕기, 김인, 김종연, 박주영, 송상우, 정현서
글로벌 사회공헌 지원팀	팀장: 정동수, 이재욱 / 간사: 이후록 / 팀원: 강유정, 권성국, 김기정, 김학석, 박지호, 박현아, 안우진, 안채연, 윤정, 이자영, 임정근, 전환진, 조장혁, 황형준
공익법제 지원팀	팀장: 이재원 / 간사: 최유미 / 팀원: 서경희, 신민호, 이강만, 이승민(M), 이승용, 정준호, 조성권, 주동진, 주지환
성년후견 지원팀	팀장: 윤희근 / 간사: 양선미 / 팀원: 강철식, 김은진, 맹주한, 양재준, 이강민, 이승묵, 이의재, 이희중, 조정익, 최지연, 표정률, 한지윤, 허경범, 허진용
청소년교육 지원팀	팀장: 김의기, 임정준 / 간사: 윤초롱 / 팀원: 김정현, 설인수, 오은미, 윤윤희, 이흥문, 정유철, 정준우, 주우현, 최완, 황윤영
봉사활동 지원팀	팀장: 장영기, 유희수 / 간사: 임경아, 황문환 / 팀원: 강선주, 김한복, 맹주한, 백현민, 서민정, 윤지은, 이민영, 이승민(F), 이예나, 이윤남, 조원준, 허영



울촌과 온율의 공익활동은 국내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개발도상국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 국외의 한국법 연구 후원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울촌-서울대 국제대학원 신흥지역 연구센터 설립

울촌은 개발도상국가와의 교류 확대, 상호 협력을 통한 공유 가치 창출 및 개발도상국가의 법제 개선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내에 울촌 신흥지역 연구센터(Yulchon-GSIS Center for Emerging Economies, 이하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울촌은 연구센터를 통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법체계와 관련 제도,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산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개발도상국 유학생들로 하여금 귀국 후 각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울촌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출신 유학생 4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추진될 연구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도상국 Country Report 작성 및 등록금지원

울촌은 개발도상국 학생 2~4명을 선발하여 해당 학생들의 자국에 대한 Country Report 작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Country Report는 각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개발도상국 원조 기구 및 국내기업 등이 현지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연구센터는 Country Report를 '신흥지역국별 보고서(가칭)' 시리즈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연 1회 발표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발도상국 산업/시장 조사보고서 작성 및 연구비 지원

율촌이 개발도상국 학생 2~4명을 선발하여 자국의 산업/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시장 조사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각국의 산업과 시장 제도에 집중하여 국내기업의 현지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센터는 산업/시장 조사 보고서를 '신흥지역 산업시장 보고서(가칭)' 시리즈로 정기 발간하고, 연 1회 발표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개발협력정책 과정(DCPP) 장학생 선발

개발협력정책 과정(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 이하 'DCPP')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장기석사 과정으로서, 학생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남·동남 아시아 출신 공무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율촌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을 추가로 DCPP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석사과정 전체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Round Table 운영

연구센터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Round Table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Round Table은 현재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US Round Table, Latin Table, Developing Countries Round Table, Chinese Table, Japan Table, European Table), 15~20명의 학생들이 주 1회 모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Special Lecture Series

연구센터는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국제학과 관련된 특별 강연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내 한국법센터(Korea Law Center) 설립후원

UC버클리 로스쿨은 한·미 양국의 학생과 법조계 인사, 기업인들에게 법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 3. 6. 미국 로스쿨 최초의 한국법 전문 연구소인 한국법센터(Korea Law Center)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국법센터는 한국경제의 부상, 한·미 FTA에 따른 한국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미국 내 한국에 대하여 높아진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율촌은 국내 법무법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법센터의 설립을 후원하였습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의 한국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 제공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이하 'WWF')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회복을 위하여 1961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입니다. WWF는 전 세계에 100여개의 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환경기구인데, 그동안 한국에는 사무소가 없어 한국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WWF는 한국에서도 자연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한국본부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율촌은 WWF의 한국법인 설립과 업무 개시에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및 등록 업무 자문,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업무 자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업무 자문, 기타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포함)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WWF는 2014년 국내에서 ① 2014년 지구 생명 보고서 한국어판 첫 발간, ② 서울시의 '2014 기후변화 대응 행동 우수 도시상' 수상, ③ 2015년 세계환경도시상에 한국 도시들의 참가 지원, ④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추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얀마 장애인 복지기본법 초안 작성 지원 등

울촌 미얀마 사무소는 2014. 6. 23. 미얀마 양곤대학교 법학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복지 기본법 초안 작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열 다섯 종류로 분류하는 국내와 비교하여 매우 단순하고 장애의 경중에 따른 구분도 없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근 미얀마의 각종 장애인 단체들은 2011년 3월 출범한 첫 민선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 (Comprehensive Law for Disabled People)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울촌 미얀마 사무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울촌 미얀마 사무소는 미얀마 장애인 정책 및 입법 추진 사항 파악, 국내 유관 단체와 현지 단체와의 연결 역할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외에, 양곤대학교 법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 지원, 도서 지원, 시청각 교육 지원 및 특강 지원 등의 사업을 협의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사업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외서 공익활동... 울촌의 안우진 미국변호사

"미얀마 장애인 복지기본법 초안 작성에 박차"

법률신문 2014-09-15

지난 3월 미얀마 양곤 사무소를 개소한 법무법인(유) 울촌이 국내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업무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공익사업은 장애인복지기본법 제정 작업 지원이다. 울촌은 지난 6월 23일 양곤대학교 법학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복지기본법 초안 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미얀마 양곤에서 공익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안우진(41·사진) 미국변호사는 "미얀마에서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열 다섯 종류로 분류하는 국내와 달리 아주 단순하고, 장애의 경중에 따른 구분도 없다"며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법제가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해 1958년에 제정된 직장교체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참전용사로 제한돼 있어 전체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미얀마가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이유는 1948년 해방을 맞은 이후, 60여 년의 군사 통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일부 승려와 대학생을 위주로 한 민주화 운동을 제외하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고, 장애인 운동 또한 같은 맥락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얀마의 각종 장애인 단체들은 2011년 3월 출범한 첫 민선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의회를 설득해 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로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 초안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울촌에서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 변호사는 "미얀마 장애인 정책 및 입법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국내 유관 단체와 현지 단체를 연결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미얀마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후원 과정에 필요한 법률자문제공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는 “서울, 미얀마 국제 친선 스포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도시 간 장애인 체육 교류를 위하여 종목별 경기대회 개최, 전문 지도자 및 선수 파견, 장애인 경기용품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올촌은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휠체어 등 기부에 따른 미얀마의 관세 부과와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양국 간 장애인 스포츠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베트남 하노이 지역 장애인 위한 정보격차 해소지원 환경구축사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 장애청소년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베트남에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ICT 교육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ICT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업은 KOICA 시민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에 이어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율촌은 수년간 베트남 사무소를 통하여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현지에서의 사무실 임대, 현지 인력 고용, 건설, 구매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사업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국 유학생 장학금 지원

울촌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남미 및 아프리카 포함)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 원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장기적인 국제 협력 관계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범보전기금 활동

울촌의 조장혁 변호사는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호랑이와 한국 표범을 보존하기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범보전기금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특히 한국 범의 보존을 위해서는 영토 내에 서식처가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조장혁 변호사는 2014년 한국 범보전기금의 러시아 탐사활동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호랑이 연구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국범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제 개선 사업

현재 사회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익활동 및 사회 환원을 장려하고 있지만, 법적인 장치가 미흡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공익을 위한 기부를 해도 세무상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기부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에 공익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을 위한 조직, 단체에 대한 법적 규제, 지원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울촌과 온율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공익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공익논문 현상 공모

공익 법제 지원을 위하여 중요한것은 우선 공익 활동과 관련한 법적 장애사항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율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회 온율 공익 논문 현상 공모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온율은
다음과 같이 공익 학술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1. 주제분야 개인과 기업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 및 정비와 관련된 주제
2. 응모자격 제한 없음
3. 마감일 2014. 8. 31.
4.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
 - 논문구성 : 논문표지, 목차, 요약(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
[※논문표지에 제목, 필자명 및 소속기관(전공학과 포함) 기재]
 - 작성방법 및 분량 : 휴면명조, 글자크기 11pt, 줄 간격 180%, A4 용지 20매 이상, 아래 아 한글 혹은 MS WORD 파일로 작성
 - 투고방법 : 논문을 수록한 파일을 온율 담당자인 윤덕근 변호사에게 이메일(ggyun@yulchon.com)로 송부
5. 발표 2014. 9. 30. 온율 홈페이지(<http://onyul.or.kr>) 및 울촌 홈페이지(<http://www.yulchon.com>)에 게재하고 수상자에 개별 통보
6. 시상
 - 〈상패와 상금〉
 - 대상 1인 상금 20,000,000원
 - 우수상 1인 상금 10,000,000원
 - 장려상 1인 상금 5,000,000원
7. 저작권
 -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수상논문의 저작권자는 온율에게 그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복제, 배포 기타 활용하는 권리를 무상으로 수여한 것으로 봄
8. 온율의 관련 계획
 - 수상 논문에서 검토, 제안된 내용은 필요한 경우 후속 연구를 거쳐 향후 관련 제도 개선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온율이 그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지원할 계획임
9. 문의처
 - 법무법인(유한) 울촌 변호사 박은수[espark@yulchon.com, 02-528-5940]

공익 논문 현상 공모에는 총 21팀이 응모하여 공익 법제 개선에 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울은 논문 심사를 위해 공익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정책학 교수 이성규)을 위촉하였고, 제출된 논문들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작들을 선정하였습니다(수상작들은 온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 내역	논문 제목	수상자
대상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식 외 4인(최정희, 김무열, 황헌순, 전세진)
우수상	개인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임장환 외 2인(임혜민, 조희경)
장려상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문성훈 외 1인(김수성)



공익법제 개선 사업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심포지엄 개최

온율은 2014. 11. 24. 공익 논문 현상공모 수상작들이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서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상식을 겸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이동식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문 내용 중 공익활동 단체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장려상 수상자인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논문 내용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논문 발표 후에는 소순무 울촌 대표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이중기 흥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문애란 G&M 글로벌 문화재단 대표, 전영준 울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자유롭게 열린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율촌 법이론 연구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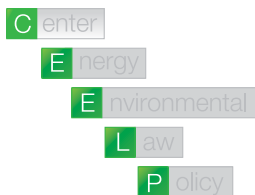
경제가 발전하면서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학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활발해지는 반면, 법사학, 법철학, 법정정책학, 법인류학 등 기초법 분야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율촌은 기초법 분야가 한국의 법현실과 법사에 초점을 맞춘 학문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율촌 법이론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율촌과 온율은 철학, 역사학,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 등 인접 인문학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및 번역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선의 법치주의(역사, 이념, 풍속) 연구
- 한국 개화기 이후 근대 법제도와 법사상(법철학)의 형성과 발전 연구
- 사회적 합리성 발전에 법이 기여하는 역할 연구
-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법적 추론의 구조와 정당성) 연구
- 법이론 고전에 해당하는 저작물들의 번역

서울대 환경에너지 법정정책 센터 지원

율촌은 환경에너지 법정정책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대 환경에너지 법정정책 센터(Center for Energy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CEELP)에 1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결과로 환경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부족의 문제가 전세계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공존하는 성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범한 서울대 환경에너지 법정정책 센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의 보전과 개선, 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에 관하여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구하는 동시에, 학계와 기업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법의 문법을 통해서 사회의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 지원 사업

성년후견제는 고령이나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지적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법률생활 및 일상생활을 원만히 누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3년 개정 민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울촌과 온율은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가 그 취지를 잘 살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신장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를 연구하고 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학술 교류 및 심포지엄 개최

1.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 개최

온율은 2014. 7. 1.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법인(유) 울촌, 국회의원 김정록(새누리당), 국회의원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한국성년후견학회장)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김윤정 판사가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중간 점검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각 발제하였고, 의사결정능력 결여자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성년후견제 감독 시스템 개선, 전문직 성년 후견 활성화를 위한 보험 제도 마련, 사회복지적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이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한국성년후견학회와 공동워크숍 개최

온을은 한국성년후견학회와 공동으로 2014. 8. 27. 한양대학교에서 <성년후견제도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은 한국연구재단 - SSK 연구사업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한국성년후견학회장)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전후한 법환경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각 발제하였고, 한국성년후견학회의 회원들은 물론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성년후견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온을은 향후에도 한국성년후견학회와 성년후견제의 정착과 제도 보안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성년후견제 지원 사업

울촌의 성년후견연구회와 공동으로 성년후견제 실무도입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활동 진행



윤홍근 변호사

울촌의 성년후견연구회(회장 : 윤홍근 변호사)는 울촌의 박은수, 윤홍근, 이희중, 김은진, 허진용, 맹주한, 조정익, 표정률, 양재준, 양선미, 한지윤, 최지연 변호사로 구성된 연구회로서 2014년 하반기부터 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는 고령화 및 치매노인의 증가 등에 대비하여 향후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제도가 될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단계에 불과하여,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연구 및 제도 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울촌의 성년후견연구회는 그 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과정에 일조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울촌 성년후견연구회는 2015년 6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학자, 실무자들이 참가할 '아시아 노인 장애인 권리옹호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온울의 성년후견지원팀과 협업하여 성년후견제의 실무매뉴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지원 중앙센터 운영 및 자문위원회 활동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의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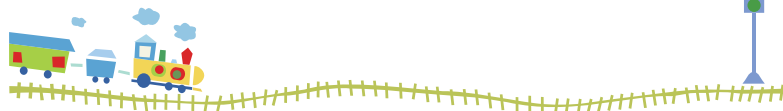
온울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위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하부 위원회에 참여하여, 후견제도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변호사	활동내용
박은수 변호사	운영위원회 소속 : 중앙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공
표정률 변호사	자문위원회 소속 : 지역센터의 후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 제공



씨드스쿨이란?

씨드스쿨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꿈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이사장 : 울촌 우창록 변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멘토링 학교입니다.



- 학교 안의 학교(School in school)로써 학교 이후, 아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저녁 시간에 운영
- 일주일에 한 번 5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대학생 교사들이 학생들의 귀가까지 책임 짐
- 멘토(T)와 멘티(Seed)가 1:1로 결연되어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학생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전인적 돌봄과 맞춤 학습 지원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은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속에서 꿈을 잃고 방향성을 상실한 다음세대가 따뜻한 동행으로 자신의 삶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기독청년대학생들의 교육봉사운동으로, 2009년 1월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씨드스쿨 후원

표현하지 못 했지만
늘 말도 안 듣고, 장난만 치던 저를
그래도 예뻐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T 덕분에 나에게도 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T를 위해서라도 꼭 열심히 공을 기울게요.
음, 이런 처음 해보는 말인데,
정말정말 사랑해요. 나의 T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

Seed School

매일 바쁘게만 살아가던
내 삶에 선물같이 다가온 너.
어색하던 첫 만남, 내게 처음으로
T 라고 불러주었던 문자,
함께 장난치며 걸어가던 귀가길..
너는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어,
무언가 주기 위해 왔던 내가 도리어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었구나.
너에게 고민거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물어올 거야.
나는 너의 T니까.

SeedA 사랑해!



씨드스쿨의 효과

씨드스쿨에서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안정된 가정에서 살뜰한 돌봄을 받기보다는 혼자 방치되어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 모르는 채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기능을 상실하고 꿈이나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드스쿨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황

씨드스쿨은 2009년 9월 덕양중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을 확산하여 현재 서울, 경기-5개 학교, 광주(전라도)-2개 학교, 4개 교회에서 씨드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활동인원 (2014)	누적인원 (~2014)
T (멘토)	327명	1,276명
Seed (멘티)	274명	1,069명

울촌과 온울의 지원

울촌과 온울은 씨드스쿨의 핵심가치인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울 구성원들은 매달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개인적으로 원하는 후원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울촌과 온울 가족의 총 후원금액 합계는 연간 1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멘토 대학생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멘토링 사업과 씨드들을 위한 울촌 인턴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울촌과 온울은 씨드스쿨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직접 후원하는 외에도, 외부 후원을 유치하고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며, 나아가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 연계한 씨드스쿨 프로그램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울은 2015. 2. 10. 대교단에서 주관한 "The 드림"감사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씨드스쿨의 성과와 개선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율촌은 이러한 씨드스쿨 후원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 언론인 협회가 공동 주관한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교육 나눔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로이슈 2015. 03. 05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 언론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교육 나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율촌은 2014년 출범한 공익 사단법인 온울(이사장 신성택 전 대법관)을 통해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 씨드스쿨 후원',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해외개발도상국 학생 후원' 등 나눔 경영을 통해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우창록 대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과 함께 진행하는 씨드스쿨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찾고 꿈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멘토인 대학생 교사들과의 매 주 만남을 통해 꿈을 심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온울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활동 중 하나다. 학교 안의 학교(School in school)로써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의 빈자리를 책임지는 성공적인 공익 교육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 탈북 중학생들을 상대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온울의 구성원 대부분이 매달 급여에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후원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사무실 지원 금액과 합쳐

서 연간 1억 원에 이른다.

율촌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선정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개발도상국 학생을 지원하게 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센터와의 MOU도 앞두고 있는 등 인재 육성을 통해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자 힘쓰고 있다.



봉사활동

봉사동아리 밀알



‘밀알’은 울촌 가족들이 2001. 1. 처음 결성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동아리입니다. 울촌의 많은 가족들이 밀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월 회비와 울촌 지원금 등으로 모인기금으로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이들을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알은 현재는 장애인 보육기관인 은혜동산을 후원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부족한 일손을 제공하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물품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참나무 장학금 모금운동 동참

“다소 쌀쌀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동복 차림으로 모인 30여명의 무리들. 몸을두드려서 여념이 없는 이들은 과연 무슨일로 여의도에 모인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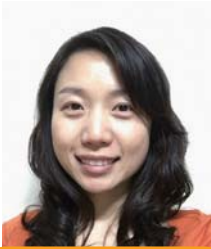


봉사활동

참나무 장학금 모금운동 동참

우리나라 현행법상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고아들은 성년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 자립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보육원 퇴소 대학생을 지원하는 '참나무 장학금'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율촌이 전사적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하여 훈훈함을 더하였습니다.

율촌의 직원들은 2014. 11. 15.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건강마라톤 대회에 함께 뛰기로 하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이들이 뛰는 거리만큼의 후원금을 참나무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4명의 참여자들 각각 5km부터 하프코스까지 총 277km를 무사히 완주하였고, 이들이 달린 거리만큼 율촌 봉사동아리인 밀알이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우창록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20여 명이 달린 거리만큼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모금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송인오 패러리걸

온울에 관련하여 사내 이메일을 종종 받아보았지만, 어떻게 참여할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참나에 마침 온울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은수 고문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저하지 말라는 온울 이메일을 받게 되어, 참나무 장학금을 위한 마라톤대회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준비절차와 논의 끝에 마라톤대회는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모멘텀이 생기면서 우대표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마라톤 참여자수도 늘어났습니다.

각박하게만 변해간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흔쾌히 온정과 관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고 감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율촌 및 온울의 구성원들이야말로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는 구절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율촌과 온울 가족들이 곳곳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율촌 신우회에서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기초수급대상자인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급식 지원 봉사활동(재료손질,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황문환 위원은 월 1, 2회 서울역 또는 가락동 하상 바오로 집 앞에서 노숙인들을 상대로 배식 활동을 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YULCHON + ONYUL

+

Volunteer





울촌
온을 더하기

장애인 고용 실천

로펌 최초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



울춘은 장애인 고용을 직접 실천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춘은 2010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직무 분석을 시작하여 두 달에 걸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한 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모집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울춘 소속 518명의 상시 근로자 중 16명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한가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에 따른 산정이며, 2015. 2. 28. 현재 울춘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로 법정 의무고용률 2.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율촌은 2014년 국내 로펌 최초로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의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익단체 지원

공익법센터 어필 후원



율촌은 2013년부터 난민과 다국적 기업 등 국제적 이슈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 공익변호사 1인의 연봉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3. 2. 5. 율촌 사무실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후원식이 열렸고, 율촌의 우창록 대표 변호사, 강희철 변호사, 윤세리 변호사, 강석훈 변호사, 어필의 김중철 변호사, 정신영 변호사와 어필의 인턴들이 참석했습니다.

율촌은 온율의 설립 이전부터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중요한 만큼 로펌 역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왔고, 로펌 변호사들이 직접 공익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는 동료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보아 이와 같이 어필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온율의 설립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고, 율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필을 후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율촌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익소송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율촌과 온율은 그 밖의 국내외 여러 공익단체들과도 협력하여 함께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들에 대해 후원금을 지원하는 외에도 이들 단체들이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익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복지재단
무료 법률 상담
지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익단체 지원



굿네이버스
무료 법률자문 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무료 법률상담 지원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 무료법률 상담 지원

공익단체지원 내역(총156,000,000원 후원)

단체명	활동	지원내역
 공익법센터 어필(APIL)	정기후원	소속 변호사 1년치 연봉 지원
 굿네이버스	법률자문 제공	국제구호개발사업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비정기후원 법률자문 제공	씨드스쿨 프로그램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청소년 육성 지원 법률자문 제공	2014. 5. 29. 협약 체결 탈북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씨드스쿨 참여 등 육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법률자문 제공
 사단법인 더벳진세상	비정기후원 법률자문 제공	공익사업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무료 법률상담	서울시 전역 복지시설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세계자연보호기금	무료 법률자문 제공	한국법인 설립과 업무 개시에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법률안 제정 관련 자문 무료 법률상담	공익 목적 제·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시각장애인 대상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한국장애인재단	법률자문 제공	2014. 3. 20. 협약 체결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제공
 밝은청소년	비정기후원	유해한 사회문화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지원

공익단체 지원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각종협회 재단 기부: 총 37,522,320원



법학연구를 위한 각종학회 및 연구기관지원: 총 103,186,300원

지원 학회 및 후원 연구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서울대 환경에너지 법정책 센터
한국국제조세협회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한국세법학회	고려대 ICR 센터
한국세무학회	서울대 경쟁법센터
한국증권법학회	엔터테인먼트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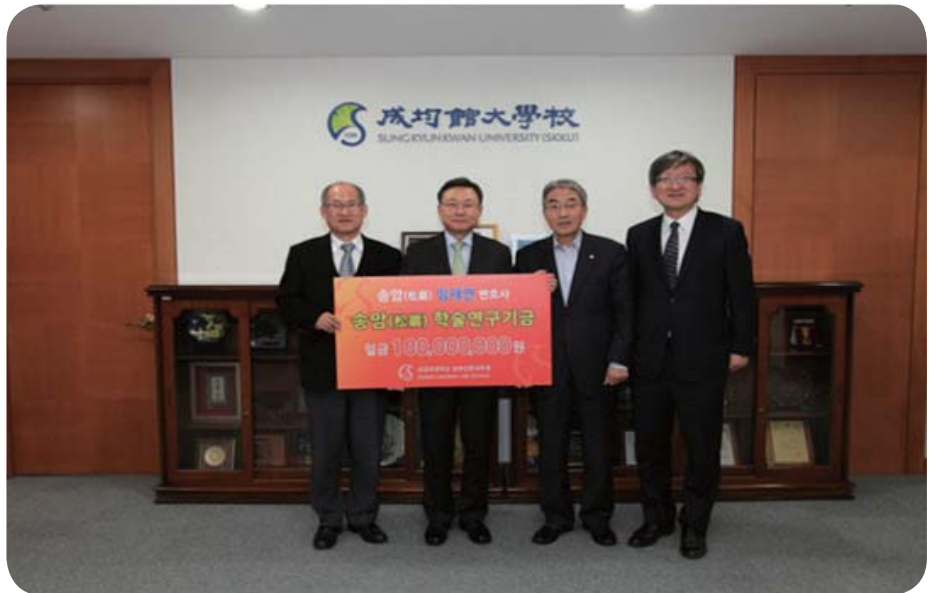
윤춘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기금 5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윤춘의 박해식 변호사는 “후배들이 공익법률상담소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며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병철 고려대 총장은 “보내주신 성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지도자적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임재연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울촌 임재연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학술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임재연 변호사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학술발전기금을 “송암학술발전기금”으로 명명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법학연구실에서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 ‘성균관법학’에 실린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해당 저자에게 250만원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4. 12. 22. 제1회 송암학술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해완, 정상현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이경렬 교수 및 대구대 법과대학 최철영 교수 등 4명을 송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13억



총기부액

1,398,183,229원

230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2,322,563원

기부자 명단

(2015. 2. 28. 기준)

강권도	김세진	박광빈	송인보	이강민	이재욱	주우현	허 범
강석훈	김순환	박민아	송인태	이경근	이재훈	지은경	현은숙
강성식	김용목	박삼철	신영수	이경준	이정현	차태진	황규상
강수구	김윤태	박석준	신성택	이도희	이진국	채경수	황문환
강유정	김은영1	박성범	안은숙	이미라	이호진	채송화	황은영
강희철	김은정	박시종	안응필	이민영	이화준	천성현	황인영
곽상현	김의기	박은수	안재호	이상민	임경아	천숙진	황정훈
곽희경	김 인	박주봉	엄효정	이석준	임수영	최선영	황형준
구지혜	김정남	박준일	염용표	이선애	임재연	최수연	Fukunaga, Hidetoshi
길지연	김정수	박지은	오세진	이선영	임정근	최승동	Harayama, Michitaka
김건웅	김정현	박지호	우재형	이수연	장기욱	최안영	
김경연	김준형	박태용	우창록	이수재	장영기	최 완	
김규현	김철환	박해성	유문숙	이수정	전영준	최인선	
김근재	김태건	박해식	유예슬	이수정2	정동수	최장석	
김기락	김태용	백현민	유흥수	이승목1	정성무	최재혁	
김기영	김태현	변현철	윤덕근	이승목	정운상	최정열	
김남호	김한복	서경희	윤세리	이승민(M)	정 원	최지연	
김능환	김현정	석홍동	윤소연	이영란	정준우	최혜선	
김동수	김희경	성수현	윤 용	이영미	정태학	한봉희	
김범준	나연순	설인수	윤용섭	이영석	정현서	한수연	
김선경	류영지	소순무	윤제선	이에진	조상욱	한승혁	
김선경2	문재우	손은정	윤초롱	이윤남	조정철	한진희	
김선희	문준영	송상우	윤홍근	이자영	주동진	한현숙	
김세연	박경숙	송영은	윤희웅	이재원	주순식	허교순	



2014년 통계

공익활동 시간

(기간: 2014. 2. 1. ~ 2015. 1. 31.)

| 총 공익활동 시간 |



4,354 시간 (분 단위결산)

| 근무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



1.02% (4,354 시간 : 424,873 시간)

|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



19시간 (4,354 시간 : 2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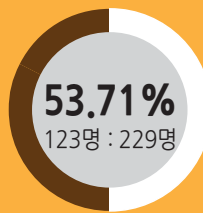
|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



35시간 (4,354 시간 : 1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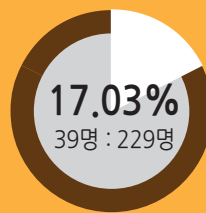
|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



53.71% (123명 : 229명)



|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



17.03% (39명 : 229명)



온울 변호사 이야기



박은수 고문



“너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아련한 영화 속 연인의 대사만도 아닌, 바로 현대 진화 생물학이 증명해 낸 진리 아니겠습니까. 한낱 미물 박테리아도, 저 먼 별 한 조각도 아늑한 어느 한 순간에는 제 몸과 함께 출연 한 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눈다는 게 무어 그리 대단하겠어요. 자유롭게,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또 다른 기쁨이지요.

울촌은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한 전문가들과 순수한 열정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좋게 할까 같이 고민했던 시간이 소중합니다.

지식을 그렇게 썼으니,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윤덕근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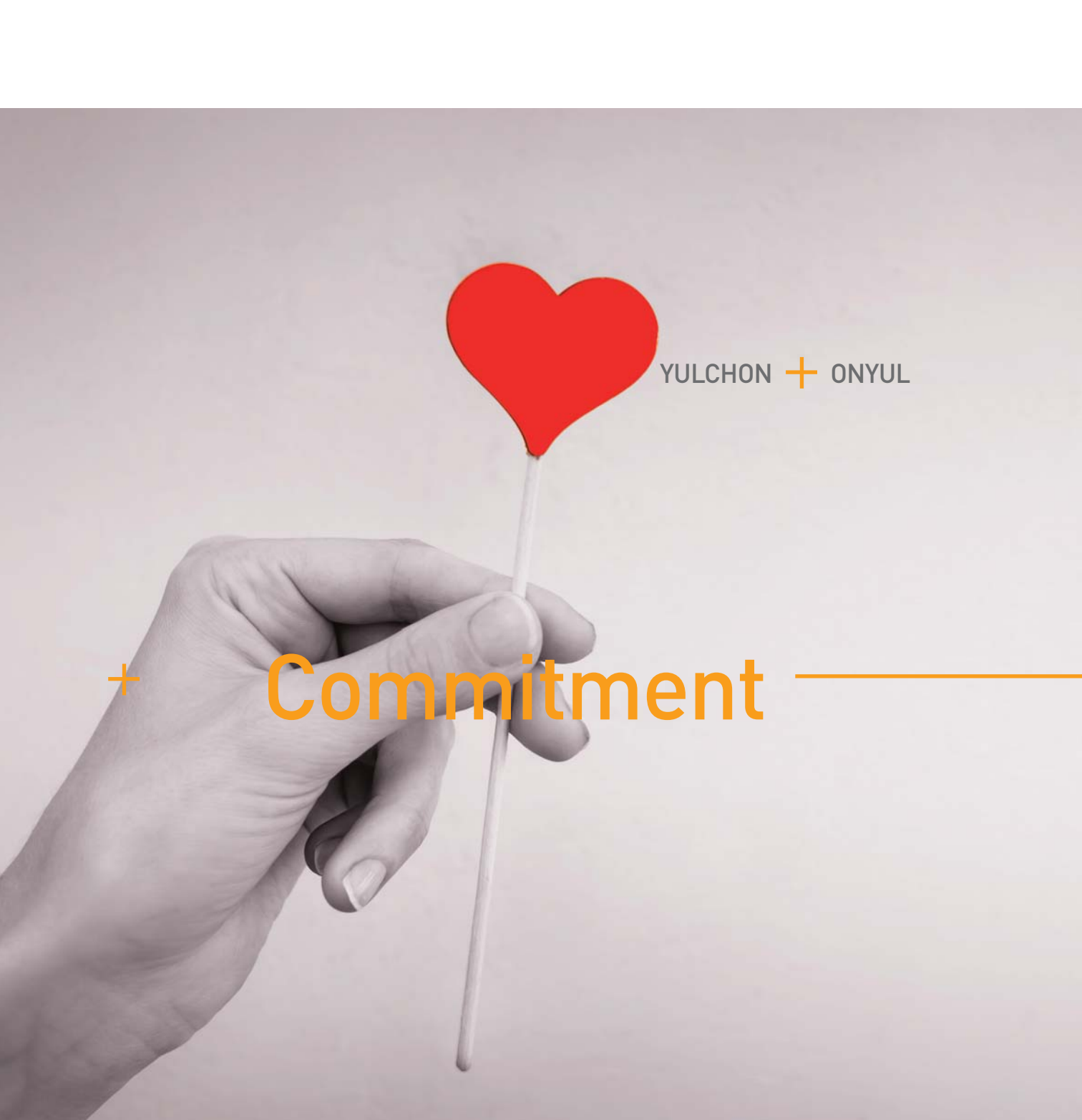
“저는 우연한 기회에 온울 설립 준비부터 현재까지 온울의 공익 담당 변호사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로펌 변호사로서의 바쁜 업무 중에 공익활동을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과 두려움도 많았지만, 온울 업무를 하나 둘씩 수행하면서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에 대한 막연했던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울의 첫 사업인 공익 논문 현상 공모를 통해 우리나라 공익활동의 법적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었고, 로펌 공익 전담변호사 모임 및 심포지엄 등에 참석하면서 로펌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울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 또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온울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보람들을 더 많은 변호사들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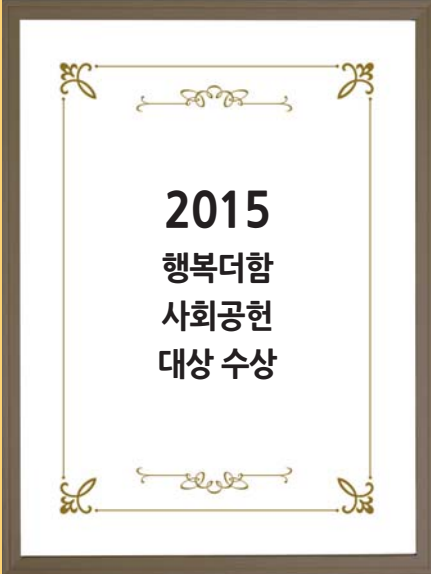
YULCHON + ONYUL

+ Commitment




수상실적
언론보도


수상실적

A rectangular award certificate with a decorative border. The text is centered and reads: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A rectangular award certificate with a decorative border. The text is centered and reads: 2014 로펌 최초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

2014
로펌 최초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

A rectangular award certificate with a decorative border. The text is centered and reads: 2013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 공익법률지원 대상 수상.

2013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
공익법률지원
대상 수상

A rectangular award certificate with a decorative border. The text is centered and reads: 2012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2012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언론보도

온오프라인



법무법인 율촌, 공익법인 온오프라인 출범

중앙일보 2014. 3. 4.

법무법인 율촌은 3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공익목적 사단법인 온오프라인(溫律) 출범식을 했다. 온오프라인은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의미로 율촌과 구성원들의 공익활동을 담당한다. 이사장은 율촌의 고문인 신성택 전 대법관이, 이사는 우창록·윤세리 대표 변호사 등이 맡는다.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 '온오프라인' 공식 출범

법률신문 2014. 3. 6

법무법인(유) 율촌은 3일 공익 사단법인 온오프라인(溫律, 이사장 신성택 전 대법관)의 출범식을 열고 공익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우창록(61사 법연수원 6기) 율촌 대표 변호사는 “개성이 강한 변호사들이 각자 시간 또는 재력, 에너지의 20%를 공익에 쓰자는 취지로 공익활동을 시작했는데 규모가 커져 조직화 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율촌은 2008년 공익위원회를 설립해 법률지원과 학술지원을 펼쳐왔다. 온오프라인은 그동안 해 온 공익활동에 더해 로스쿨과 법조계에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스쿨생과 법조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민간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하고,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해 ‘성년후견제 1주년 점검 심포지엄’과 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할 계획이다. 우창록 대표 변호사가 2009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씨드스쿨을 여러 학교에 확대 운영하고 개발도상국의 법제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사회 공헌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국제대학원 ...

'신흥지역 연구센터' 현판식

중앙일보 2015.03.12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11일 '율촌-서울대 신흥지역 연구센터' 현판식을 했다. 행사엔 유근배 서울대 기획부총장, 김종섭 국제대학원장, 우창록 율촌 대표 변호사, 윤세리 공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중인 개발도상국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법체계와 관련 제도,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법체계 등에 접할 기회를 제공, 이들이 귀국하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율촌 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개도국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경제 법제를 다양하게 공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글로벌 사회 공헌



율촌-서울대 '율촌 신흥지역 연구센터' 공동설립

파이낸셜뉴스 2015.03.11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 사단법인 온옴은 서울대와 공동으로 동남아 신흥국 출신 학생들을 위한 '율촌신흥지역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센터에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캄보디아 등의 학생 중 일부를 선발해 경제·산업 법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UC 버클리 한국법센터 설립 기념 첫 컨퍼런스

한국일보 2014. 4. 18.

한국법 연구 및 한미 법조인들의 연대를 강화할 UC 버클리 한국법 연구센터(Korea Law Center)가 지난 3월 설립됐다. 그 설립 기념으로 18일 UC버클리 법학대학원은 첫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센터의 방향, 목표, 비전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이날 오전 9시-오후5시 30분 UC 버클리 인터내셔널하우스에서 열린 첫 컨퍼런스에는 양창수 한국 대법관과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초청돼 한국법의 역사와 미래 등을 되짚었다.

또한 류원규 UC 버클리 한국동문회장, 우창록 율촌로펌 대표, 카트리나 민, 베리다 리 변호사 등도 한미양국 법의 미래를 분석했다.



해외서 공익활동 ... 율촌의 안우진 미국변호사

법률신문 2014. 9. 15.

2014년 3월 미얀마 양곤 사무소를 개소한 법무법인(유) 율촌이 국내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 업무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 양곤에서 공익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안우진 미국 변호사는 "미얀마 장애인 정책 및 입법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국내 유관 단체와 현지 단체를 연결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사회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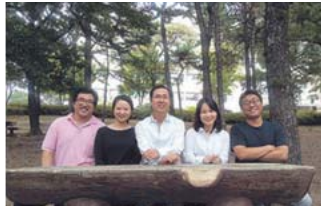


미얀마 장애인복지기본법 초안 작성에 박차

에이블뉴스 2014. 9. 3.

법무법인(유) 올촌 양곤 사무소에서는 양곤대학교 법학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입법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Comprehensive Law for Disabled People) 초안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는 군부 통치를 거치면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올촌은 위 협약을 기초로 법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공익법제 개선사업



온울 학술논문 현상공모전, 경북대 조세법 연구팀 대상

매일신문 2014. 10. 3.

경북대 조세법 연구팀이 공익법인 온울이 최근 실시한 제1회 공익 관련 학술논문 현상공모전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작은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기부활동, 자원봉사활동과 각 관련한 제도로 3분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됐다.

온울 공익논문 대상에 이동식 교수 선정

법률신문 2014. 10. 2.

공익법인 온울은 '제1회 온울 공익 논문 공모' 결과 21편의 응모작 중 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제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대상작이 외국의 입법례와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익활동 제도 전반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공익활동 수행 단체나 기부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언론보도

공익법제 개선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심포지엄... '온을 공익논문 공모' 시상

법률신문 2014. 11. 17.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 사단법인 온을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월 '제1회 온을 공익논문 공모'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관한 제도 △기부활동과 관련한 제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제도 등으로 현행 공익활동 관련 제도를 분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장려상 수상자인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이 교수와 문 교수 등 제1회 온을 공익 논문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성년후견제 지원 사업



율촌, 성년후견제 1년 점검

한국경제 2014. 7. 21.

법무법인 율촌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을 열었다. 성년후견제는 지난해 7월부터 금지선·한정차선 제도를 대신해 시행됐으며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철웅 한국성년후견법학회 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도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의사결정 능력 결여자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성년후견제 감독 시스템 개선 △전문직 성년 후견 활성화를 위한 보험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씨드스쿨 후원



법무법인 율촌, 형편 어려운 청소년 멘토링 '씨드스쿨' 출범

중앙일보 2015. 3. 6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은 지난 1997년 설립된 대형 로펌으로 전문영역에서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율촌은 지난해 출범한 공익 사단법인 온을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 씨드스쿨 후원이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우창록 대표 변호사가 이사진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과 함께 진행하는 씨드스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온을의 구성원 대부분은 매달 급여에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후원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사무실 지원 금액을 합쳐 연간 1억 원에 이른다.

공익단체 지원



장애인 재단, 울촌·온율과 무료법률 지원 협약

아주경제 2014. 3. 26.

한국 장애인 재단은 20일 법무법인 울촌·사단법인 온율과 법률 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법률 지원 사업은 장애인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장애인 재단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온율이 온라인 법률 상담과 자문을 맡게 된다. 온율은 울촌이 사회 공헌 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이채필 장애인 재단 이사장은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다”며 “이번 사업이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목 이 사람] 공익법센터 '어필' 후원 강희철 울촌 대표

법률신문 2013. 2. 13.

“로펌 변호사들이 직접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는 동료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촌의 젊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5일 공익법센터 ‘어필’과 후원 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 울촌의 강희철 대표 변호사는 “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로펌도 마찬가지”라면서 “변호사 업무가 원래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을 젊은 변호사들에게 불러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촌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앞으로 대표 변호사들이 공익위원회에 참여해 로펌 차원의 공익활동에 더 힘쓰는 계획이다. 울촌은 2008년 공익위원회를 설립해 5년째 법률 지원과 학술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공익단체 지원 등에 쓰기 위해 3억 원을 마련해 이 가운데 약 4000만원을 어필에 지원했다.

언론보도

공익단체 지원



남북 하나재단-울촌, 탈북청소년 '착한 리더' 육성 협약

뉴시스 2014. 5. 29.

남북 하나재단과 울촌은 '통일을 준비하는 착한(着韓) 리더 육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단과 울촌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과 장학사업 등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서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에 전문지식과 기능까지 갖춘 북한이탈주민 출신 인재인 '착한(着韓)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수상소식



법무법인 울촌,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로이슈 2015. 3. 5.

법무법인(유) 울촌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 언론인 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교육 나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울촌은 2014년 출범한 공익 사단법인 온울(이사장 신성택 전 대법관)을 통해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 씨드스쿨 후원', '서울대국 제대학원과 해외개발도상국 학생 후원' 등 나눔 경영을 통해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우창록 대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과 함께 진행하고 씨드스쿨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찾고 꿈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멘토인 대학생 교사들과의 매 주 만남을 통해 꿈을 심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온울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활동 중 하나다. 학교 안의 학교(School in school)로써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의 빈자리를 책임지는 성공적인 공익 교육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울촌 · 온울의
아름다운 사람들



울촌 · 온율의 아름다운 사람들





율촌 · 온율의 아름다운 사람들





2014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
2014 YULCHON-ONYUL PRO BONO REPORT

